

사업 광주·전남 쏠려 '호남 변방' 전략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등이 서남대 의대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민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이용호, 정동영, 조배숙, 김광수 의원.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전북이 호남 권역에서조차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위주로 현안 사업이 쏠림으로써 전북이 호남의 중심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 미래의 희망은 = 경제 부흥
전북 지역경제는 각종 경제지표가 말해주듯 여전히 침체 국면이다. 특히 전북 지역 산업구조의 현실은 암울함 그 자체다. '변화된 대기업조차 없는 도시, 1인당 지역총생산(GRDP) 전국 하위권 도시' 등 전북 지역 경제 현주소다. 1990년대 이후 한국GM(군산), 현대(봉동) 등 자동차 생산 중심지로 급부상했지만 쇠락하고 있다. 관광 역시 교통 불편과 스키장이나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 또한 호남 정치의 중심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속은 전혀 없다. 전북 현안 사업들이 경제 논리에서 매년 뒤로 밀리고 있게 현실이다.

중앙무대에서 제 목소리 낼 수 있는 다선 의원 부족 지역의원들이 뚝뚝 문쳐 현안사업 한목소리를 내야 지자체도 상황 냉철하게 판단 적극적으로 대처 시급

그렇다고 지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부각할 수 만도 없다. 지역정기와 경제는 "마냥 우려와 꾸념만 늘어놓을 순 없다. 이제는 모두 한데 뭉쳐 지역경제 부흥에 매달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얘기한다. 지역경제가 이미 바닥을 친만큼 이제라도 회생의 첫 단추를 잘 꿰면 경제 활성화의 기반미련은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다. 지역 경제는 우선 기금운용본부의 이전과 탄소산업 육성법 제정 등을 경제 부흥의 부싯돌로 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이전은 금융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전략사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탄소산업 육성법은 새로운 먹거리 희망의 씨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새만금국제공항 조지 건설 등 인프라 구축은 가장 시급한 지역경제 현안으로 꼽고 있다. 게다가 익산 식품 클러스터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 새만금 첨단 농업생명 산업특구 조성 등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만 바라

보고 있어서도 안된다. 미래발전의 청사진 마련과 함께 저성장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판단해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업 성과위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지역사회 변화와 사회상을 반영한 정부정책 반영 요구 등 가까운 미래에 대한 대비도 연속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실현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정치권도 영향력 강화해야 = 다선 의원들 부족** 많은 각종 사업과 정책에서 전북이 제외되면서 도민들이 절망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도민들의 박탈감 등 정서를 인식해야만 된다. 지역 정가는 우선, 전북 정치권이 호남과 중앙 무대에서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물보다는 당 간판으로 손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는 주홍글씨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여기서 선거 때만 되면 제기되는 물갈이론으로 인해 중앙무대에서 지역

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다선(多選) 의원들이 부족하다는 것도 배경이 된다. 선수(選數)만 보더라도 가까운 광주전남 정치권은 초·재선 의원들과 다선 의원들이 골고루 포진해 있는 반면 전북 정치권은 상대적으로 초선이 많았다. 중앙 무대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허리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 공직사회에서 지역 출신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져 독자적으로 행동했고, 사 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심각한 정치력부재와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이번 4.13 총선에서 정동영(4선), 조배숙(4선), 이춘석, 유성엽(3선) 의원 등 다선 의원이 당선되면서 자생력이 높아졌다. 지역의원들이 뚝뚝 문쳐 지역현안 사업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면 호남과 중앙정치에서도 당연히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가 한 관계자는 "여야 중앙당 관계자들이 호남을 방문해도 광주, 전남을 먼저 찾고 있다. 이에 전북은 언제까지 호남에서도 변방이나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정당부터 벗어나야 소지역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 변화되지 않으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세가지 사례로 보는 전북 차별

사례1. 한은 전북본부 화폐수급업무 배제

화폐수급거래란 금융기관이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한국은행 발권창구를 통해 화폐를 대량으로 입출금하는 거래를 말한다. 정산 및 현금수송 등 업무도 수반된다. 특히 지역본부가 있을 경우 화폐수급거래를 통해 신권확보는 물론 오만원권 수급에도 승용이 트이게 된다. 문제는 지난 2012년 한국은행이 지방조직 경영 합리화라는 명목 아래 광역본부로 통합했던 지역본부 가운데 전북만이 유일하게 배제됐다. 한국은행은 언론보도를 통해 자

체적으로 통합을 한 이후 4년여 만에 재개하는 업무인 만큼, 성과 등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천본부의 경우 화폐수송 거리가 경기본부와 서울까지 약 40~50km인 반면, 화폐수급업무에서 제외된 전북본부의 경우 광주전남본부나 대전충남본부까지 약 80~100km나 떨어져 있다. 특히 전북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금융산업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원활한 화폐수급업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사례2. 군산항 환적자동차화물 불허

일명 '카보타지' 정책으로 군산항 환적자동차화물 취급이 어렵게 됐다. 가격이나 어려운 군산항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군산항에 국비 50여 억원 들여 1만5,000평 규모로 환적자동차 야적장을 새로 조성해 신규 자동차 화물을 유치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사실 군산항은 경제여건 악화 속에서도 지난 2015년에는 군산항 전체물동량 1,847만 7,000톤의 18.7%에 해당하는 30만1,000대(346만2,000톤)의 환적자동차를 처리,

120억원의 경제 효과를 가져왔었다. 또한 군산항을 새만금과 함께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카보타지 정책 몰로 인해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기아, 현대 등 자동차 환적 물량이 전남 광양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 해양항만업계에서는 당연히 자동차 화물 카보타지 를 적용과 광양항 특혜 등에 대해 반발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사례3. 서남대 의대 폐과

서남대가 다시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재정기여자가 정해지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노력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은 아예 폐과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반면에 서남대와 함께 부실 의대로 낙인이 찍혔던 강원도 관동대는 가톨릭관동대대로 이름을 바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예수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구)서남학원 재단에서 들고 나온 의대 폐과 방안을 놓고 교육부가 망설이고 있다. 여기에는 의대를 정치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정치권도 한몫 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와 목포시의 경우 속원사업인 의대 신설 추진의 호재로 보고 있다. 인구 대비 의대 정원이 적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폐과되는 서남대 의대의 정원을 우선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